

구산 변벽 선생의 현실 참여와 학문 태도 고찰

2013.08.24

변수남(30세 이조참판공파 국경공 후손) 씀  
목포 홍일 중학교 교사

歌賦 原文

歌賦  
歌之時義遠矣我永以言律以聲唱有調發有  
情既清濁之有殊又悲懼之不一人之樂也歌  
亦樂也人之憂也歌亦憂也一馬乾坤憂樂幾  
何樂以歌小憂以歌多往古來今我使之然原  
夫混沌初判太虛寂然天聽無譁萬物咸若自  
不平之一鳴始歌也之有作至若麥穗殷墟淚  
箕子目采薇西山清二子風數曲千年流恨無  
窮及夫寧子遊齊飯牛悲謳梁鴻適越登岳長

謠以嘉邇舉猶飲戀恨而况易水波寒荆卿悽  
惋紫塞秋高公主多怨七首無賴鴝鵒幾羨惟  
使朱門曉關流水接軫楚舞簫首高宴將半唱  
仙妓之一聲痕暮江之千里酌北海方壽南山  
樂且湛芳摧玉樹是所謂摠萬情之悲懼為皆  
感於觸類嗚呼楚王多惡竹枝何處齊郊有窵  
松柏不語歌自悲涼情亦於悵含憤當時寄恨  
千億天道如何沉恨者多歌豈悲人人自悲歌  
歌本性情所貴惟和何王風一萎於蔓草慨正  
聲之微茫孰有感於二南寂寞窈窕之章起矣

怨於騷人盡是鄭衛之聲若余者郢路孤踪狂  
歌半生白雪孤吟有誰知音將欲歌南風和舜  
琴相禹湯於軒墀躋民物於仁壽庶使絃誦沸  
天謳歌撲地舞之歌之皞皞熙熙何必商山紫  
芝歌燁燁之清詞鵠立鸞班賀千載之一時不  
然則學楚狂於荷蕢歎鳳芳之德衰也

## 원문

### 歌賦

歌之時義遠矣哉永以言律以聲唱有調發有情既清濁之有殊又悲懼之不  
一人之樂也歌亦樂也人之憂也歌亦憂也一馬乾坤憂樂幾何樂以歌小憂  
以歌多往古來今孰使之然原夫混沌初判太虛寂然天聽無譁萬物咸若自  
不平之一鳴始歌也之有作至若麥穗殷墟淚箕子目采薇西山清二子風數  
曲千年流恨無窮及夫甯子遊齊飯牛悲謳梁鴻適越登岳長謠以嘉遯舉猶  
飲戀恨而况易水波寒荆卿悽惋紫塞秋高公主多怨七首無賴鴻鵠幾羨惟  
使朱門曉闢流水接軫楚舞矯首高宴將半唱仙妓之一聲痕暮江之千里酌  
此海方壽南山樂且湛方摧玉樹是所謂摠萬情之悲懼茲皆感於觸類嗚呼  
楚王多怨竹枝何處齊郊有冤松栢不語歌自悲涼情亦於悒含憤當時寄恨  
千億天道如何沈恨者多歌豈悲人人自悲歌歌本性情所貴惟和何王風一  
萎於蔓草慨正聲之微茫孰有感於二南寂寞窈窕之章起哀怨於騷人盡是  
鄭衛之聲若余者郢路孤踪狂歌半生白雪孤吟有誰知音將欲歌南風和舜  
琴相禹湯於軒墀躋民物於仁壽庶使絃誦沸天謳歌撲地舞之歌之皞皞  
熙熙何必商山紫芝歌燁燁之清詞鵠立鸕班賀千載之一時不然則學楚狂於  
荷蕢歎鳳方之德襄也

### 가부

#### 변벽 지음

가의 뜻은 심원하다. 길게 끌면서 말하고, 규율에서는 사성으로  
하고, 창에는 시조가 있다. 표현하면 정이 나타나는데 이미 청탁이  
다르다.

또 근심과 기쁨이 다르다. 사람이 기쁘면 노래도 기쁘고 사람이  
근심하면 노래도 슬프다. 천지 만물에 근심과 즐거움이 그  
얼마인데 즐겁게 노래한 것은 적고 근심하며 노래한 것은 많다.  
자고이래 그 근원은 무엇인가?

무릇 혼돈초 태허 적연을 판단하고 하늘이 시끄럽지 않고 만물이

모두 평등하지 않은 한 번의 울림을 듣고 최초의 노래가 만들어졌다.

은나라 옛터에 보리 이삭이 기자 눈에 보였을 때, 서산에 고사리를 캐던 1)백이숙제가 수곡을 읊었을 때, 천 년 동안 흐른 한이 무궁하였다.

춘추시대 위나라 사람 영척<sup>2)</sup>이 제 환공에게 등용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소를 먹이노니라고 한 슬픈 노래나 양홍<sup>3)</sup>이 월 땅으로 가면서 지은 등악장요는 은둔의 아름다움이 오히려 한을 듬뿍 담고 있다. 그러니 역수의 파도는 차갑고 형경<sup>4)</sup>은 처량하였고, 만리장성은 쓸쓸히 높는데 시인은 또한 월망하여 칠수를 지었었다.

믿을 수 없구나. 흥곡이여 얼마나 부러워했던가.  
오직 주문에 새벽이 찾아오니  
유수에 수레 끝이 걸리고 초인은 춤을 추는구나.  
고개를 돌리니  
고연이 반은 끝나 가는데  
노래는 선기의 일성이요  
아픔은 저녁 강이 천리구나.

- 1) 백이와 숙제는 위나라 절조가 뛰어난 만큼, 그들이 굶어 죽기 전에 지어서 불렀다는 채미가(采薇歌)가 공자(孔子)에 의해 정리된 《시경(詩經)》의 국풍 속에 수록. “고사리 캐세 고사리 캐세, 고사리도 연하게 자라났나니. 돌아들 가세 돌아들 가세, 이해도 장차 저물려 하니.[采薇采薇 薇亦作止 曰歸曰歸 歲亦莫止]”
- 2) 춘추 시대 위(衛)나라 영척(甯戚)이 미천했을 때, 제 환공(齊桓公)에게 등용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나라에 들어가 남의 소를 먹이면서 제 환공의 행차를 바라보고는 쇠뿔을 두드리며 노래하자, 환공이 그 노랫소리를 듣고 그를 현자(賢者)로 여겨 등용했던 데서 온 말이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 “남산은 빛나고, 백석은 깨끗하다. 태어나서 서로 선양하던 요순 시대 못 만나, 짧은 베 홑옷은 겨우 정강이만 가릴 뿐인데, 이른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소를 먹이노니, 긴 밤이 지루해라 언제나 아침이 올런고. [南山矸 白石爛 生不逢堯與舜禪 短布單衣適至飢 從昏飯牛薄夜半 長夜漫漫何時旦]”
- 3) <오화가>는 후한(後漢) 때 양홍(梁鴻)이 은거하러 가는 길에 낙양(洛陽)을 지나면서 부른 노래로, 그 내용은 화려한 생활을 누리는 지배층에 대비하여 끝없이 고생하는 백성의 삶을 한탄한 것이다. 《後漢書 卷83 梁鴻列傳》
- 4) 형가(荊軻)가 연(燕)나라 서울 저자거리에서 개백장과 축(筑)의 명인 고점리(高漸離)와 더불어 서로 어울려서 고성방가(高聲放歌)하며 방약무인(傍若無人)하게 노닐다가, 연(燕)나라 태자 단(丹)의 요청으로 진 시황(秦始皇)을 죽이기 위해 출발할 즈음에, 이른바 ‘역수한풍(易水寒風)’의 비가(悲歌)를 부르고 떠난 고사가 있다.

이 해변에서 술잔을 기우리며  
남산처럼 만수무강하기를 비는데  
즐거움이 가득하니 옥수가 꺾인다.

이는 소위 만정의 슬프고 기쁜 것을 모두 묶어 표현한 것인데  
유추해서 확대 적용해 느낀 것이다. 아! 초왕은 원망이 많구나,  
대나무는 어느 곳에 있는가? 제의 변방에 원한이 있었지만 송백은  
말하지 않았다. 노래가 슬프고 처량하니 정도 또한 분함이 깃들여  
있다. 마땅히 세태도 천억의 한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하늘의 도가 어찌 침통한 한이 많겠으며  
노래가 어찌 사람마다 슬퍼해서 비가가 되었겠는가?

노래는 본 성정이 오직 화합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 어찌  
왕풍<sup>5)</sup>이 만초<sup>6)</sup>에서 시들겠는가? 바른 소리가 희미함을 개탄하니  
누가 이남에서 고요하고 그윽한 문장을 느끼겠는가?

시인보다 애통한 것은 정위의 소리다. 나 같은 사람은 영로의  
외로운 자취로 광가로 반생을 보냈으니, 백설로 외롭게 노래한들  
내가 장차 임금의 뜰에서 순의 오현금과 우탕에 화합하는 남풍<sup>7)</sup>을  
노래하고자 한 뜻을 알 것인가? 나는 백성과 동물을 인수로 돌봄에  
노래와 시로 하고자 하였다.

- 
- 5) 시경(詩經) 왕풍(王風) 양지수(揚之水)의 “느릿느릿 흐르는 저 물결, 나뭇단도 떠나려 보내지 못하네. 아 나는야 님과 헤어져 멀리 떠나, 이곳 보 땅에서 수자리 사네.[揚之水 不流東楚 彼其之子 不與我戍甫]”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 6) 춘추 시대 정(鄭)나라 장공(莊公)에게 채중(蔡仲)이 장공의 아우인 공숙단(共叔段)을 빨리 처치해야 한다고 간하면서 “그 세력이 커지지 않게 해야 한다. 세력이 커지면 도모하기 어렵다. 풀이 무성해져도 없애기 어려운 데, 더군다나 임금님의 사랑하는 아우이겠는가. [無使滋蔓 蔓難圖也 蔓草猶不可除 況君之寵弟乎]”라고 말한 내용이 《춘추좌씨전》 은공 원년 조에 나온다.
- 7) 순(舜)임금이 오현금(五絃琴)을 타면서 지었다는 <남풍가(南風歌)>에 “남풍의 훈훈함이여 우리 백성의 노여움을 풀겠구나. 남풍이 때맞춰 불어오이여! 우리 백성의 재물을 부유케 하리로다.[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愠兮 南風之時兮 可以阜吾民之財兮]” 하였다.

하늘에서는 노래가 넘치고 땅을 치며 춤추고 노래하며  
호호히히<sup>8)</sup>한다면, 하필 상산의 자지가의 화려한 가사가  
필요하겠는가?

조정 관원으로 있을 때는 만나기 어려운 때를 축하하고, 그렇지  
않은 즉 삼태기를 멘 초나라 접여의 봉의 탄식<sup>9)</sup>을 본받을 것이다.

---

8) 광대하고 자득한 모양을 말한 것으로, 즉 성왕(聖王)의 정치는 마치 천지의 자연과 같아서, 백성들이 그 태평  
성대에 살면서도 전혀 누구의 덕으로 그렇게 사는지조차 모르는 아주 자연스러움을 뜻한다.

9) 초광(楚狂) 접여(接輿)가 공자의 문을 지나가며 부른 노래. “봉이여 봉이여, 어찌 이리 덕이 쇠하노.[鳳兮鳳兮  
何韓之衰也]”

## 서론

변벽은 합천군 야로현 돈평리에서 아버지 변신보와 어머니 동래 정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자는 현지 호는 구산이다. 1483년에 탄생하여 1528년에 졸하는데, 세칭 변벽하면 구산 선생으로 칭하며 기묘 명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기묘 명현으로 불리는 변벽에 대해 따라다니는 대명사가 있다. 기묘당화 인칭선견지명<sup>10)</sup>이 그것이다. 이는 동계 정온이 변벽에 대해 평한 것인데 매우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정온의 평은 변씨 족보에도 그대로 산정되어 있다.

기묘에 조정에서 현량과를 설하였는데 공은 효렴의 천으로서 표제는 학문기식사친무위라 했으나 응대하지 않아 마침내 사<sup>화</sup>를 면하니 모든 사람들이 선견지명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만큼 변벽과 기묘년과는 지밀한 관계라 할 수 있겠다. 기묘년에 기묘 명현으로 천거된 것이 그 하나이며 그 때문에 오히려 그의 선견지명을 드날렸으니 토끼띠에 태어나고 토끼띠에 자신의 명예를 죽면에 새기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계묘년에 태어나 기묘년에 기묘 명현으로 잘 알려진 변벽이 현량과에 추천된 이유를 살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변벽의 은둔에 사상적 배경이 되어준 접여를 언급한 가부 내용도 검토해 나가겠다. 또한, 거창 지역에서 변벽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였는가를 알아가기 위해 추존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변벽은 초광 접여처럼 덕을 감추고 은둔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까닭을 학문 지향 방향으로 밝히고자 한다. 변벽이 현실 참여 방법을 김식에 대한 의를 실천하는 데서 찾을 수 있기에, 김식을 통해 변벽의 사상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

10) 己卯黨禍 人稱先見之明



## 본 론

### 1. 기묘 명현이 된 이유

변벽이 기묘 명현으로 이름을 드날린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하나는 학문이며 두 번째는 효도이며 세 번째는 청렴이다.

학문에 대한 깊이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은 변벽을 학문기식하다 하여 1519년 거창을 대표하는 학자로 천거되는 데서 알 수 있다. 거창지역에서는 변벽과 함께 형사보 유자방 등 세 명이 천거되었다. 이처럼 변벽이 현량과에 천거된 첫 번째 이유는 학문적 명성 때문이었다.

두 번째는 효도이다. 다음 내용은 왕조실록 중종 13년 무인(1518, 정덕 13)조이다.

변벽은 편모(偏母)를 봉양하면서 몸소 맛난 음식을 장만하여 평생을 거르지 않았으며,

위 내용으로 보았을 때 변벽은 타고난 효자라 할 수 있겠다. 변벽이 현량과에 추천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효자라는 점이였다. 그의 홀어머니가 변벽의 나이 28세에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가 임종하기 전에는 밤새 탕약을 지어내고 의관을 풀지 않고 곁을 지켰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죽만 먹고 삼 년 동안 여묘살이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청렴이다. 변벽이 현량과에 추천된 이유 중 하나가 청렴하다는 점이다. 현량과는 조선 중종 14년(1519)에 조광조의

건의에 따라 경학에 밝고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천거하게 하여 대책만으로 시험한 뒤 관리로 선발한 관리 임용제도이다.

지방이나 중앙이나 모두 추천된 인원을 예조가 통합 관리하고 의정부에 후보자의 성명, 기국, 재능, 학식, 행실과 행적, 지조, 생활태도와 현실 대응의식 등 일곱가지 항목을 보고했다. 그런 후에 이들을 전정에 모아놓고 임금이 친림한 자리에서 대책으로 시험하여 인재를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519년 4월 120명의 후보자 중에서 장령 김식(金湜)<sup>11)</sup>, 지평 박훈(朴薰) 등이 선발되는데 변벽은 120명의 후보자 명단에 들어갔다.

현량과 실시의 첫 번째 목적은 아무래도 훈구파를 견제할 수 있는 청렴한 신진 사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가장 참신하고 청렴하며 그들의 도학적 이상향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 바로 변벽이었던 것이다. 그 밖의 구산집에 산견되는 선생심성염결 안빈낙도라는 말에서도 그의 청렴성을 짐작할 수 있다.

## 2. 봉황대 위치 및 의의

현재 변벽이 32세에 지었다는 봉황대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외가가 거창 모곡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며 이후 이곳은 그의 신후지까지 되어주었다. 변벽의 나이 3세에 거창 모곡에 귀산하에 살게 되었다는데 이는 외할아버지인 정사종의 집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여겨진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외할아버지가 딸과 외손자의 정착을 위해 자기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을 것이다.

구산집에는 변벽이 최초 거창에서 살았던 곳은 모곡 구산 아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의 영언재가 위치하고 있는 도평리

11) 기묘사화 이후 있었던 신사무옥 (1521년) 이 있기 1년 전 거창으로 내려온 김식은 봉황대에서 정견이 같은 변벽을 만나고 백암이라는 곳에서 숨어 지내다가 혈서를 쓰고 자결한다.

89번지 근방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 현재 거창읍에서 도평리 89번지까지는 약 5.8km정도이니 구산집에 기록한 군북 십 리 즉 거창읍에서 4km와 얼추 맞아 떨어진다.

변벽은 모곡 구산에서 평생을 살지만 그곳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동쪽으로 봉황대를 일구며 삶의 터전을 확대하였다. 이때가 그의 나이 32세이다. 변벽이 봉황대를 일군 곳은 지금의 도평리로 조양대와 황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그 인근이 틀림없을 것 같다. 실제로 이곳의 도로명이 봉황로이며 봉황대라는 지명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봉황대(鳳凰臺)는 본시 황산(黃山)이라 하다가 15세기 중엽 선산 영봉리에서 옮겨온 선산 김씨들이 누대에 걸쳐 묘를 들이고 고향을 기려서 새 봉자를 넣어서 봉황대라 이름 지었다.”라는 지명 유래 설명을 본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봉황대는 변벽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선산 김씨들이 말하는 봉황대가 변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인다.

< 봉황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도평리 지도 >



황강이 구산을 태극처럼 안고 도는 오른쪽 정점에서 성기천이

합수하면서 삼태극을 형성하는 곳에 변벽은 봉황대를 세웠을 것이다. 한편 구산집에는 봉황대의 위치를 거창군에서 북쪽으로 15리라 기록하고 있으며 현대 도량형 기준으로 본다면 거창읍에서 약 6km 북쪽에 위치한다고 보인다. 아래 지도에서 풍선처럼 표시된 곳에 봉황대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봉황대 추정 위치>

이를 좀 더 세분화 시켜보면 크게 네 군데로 봉황대 위치를 가능해 볼 수 있다. 변벽의 오대손 변유도가 찬한 가상에 따르면 변벽은 구산하 정침에서 돌아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시찬이 찬한 행장에 따르면 장우봉황대서향진지원이라 기록되어 있다. 김시찬의 행장을 근간으로 세워진 변벽의 신도비에도 장우봉황대서향진지원라 기록되어 있다. 장복추의 묘갈에도 무자장봉황대서술좌지원이라 기록하고 있다.

변벽은 구산 근처에 봉황대를 세우고 여기에서 학문을 갈고 닦으며 정신을 수양했다. 그런데 변유도나 김시찬 장복추 행장에 공통으로 등장하고 있는 곳은 봉황대 서쪽에 변벽을 장사지냈다는 점이다. 봉황대 서쪽이면 지금의 도평리 89번지로서 변벽이 영면한

곳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봉황대는 변벽의 묘지에서 동쪽 방향이 되는데 아래에 표시해 둔 네 군데 지점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봉황대 추정 4위치도>

이제부터는 봉황대가 가지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밝혀나가겠다. 구산집은 1825년 을유년에 발간된다. 구산 선생 서거 297년 만인데 구산집에 남아 있는 변벽의 글은 오로지 가부(歌賦)만 현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구산집을 통해 변벽의 문학 역량을 살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변벽이 남긴 유일한 글인 가부를 통해 변벽이 봉황대를 지은 의도를 짐작할 따름이다.

봉황대를 지은 시기가 그의 나이 32세로 양성재를 지은 시기보다 무려 4년이 빠르다. 왜 봉황대를 지은 시기가 중요하냐 하면 변벽이 사상적으로 비로소 완전한 입지를 세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변벽은 봉황대를 완성함으로써 정치가의 길을 걷기 보다는 학문과 인격의 완성과 음풍영월하며 춘당공으로부터 물려받은 가풍을 떨어뜨리지 않는 길을 걸어가려 했다.

변벽의 나이 37세에 정치적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이것이 곧 현량과 추천이다. 그런데 변벽은 단호히 출사 의지가

없음을 밝힌다. 변벽이 현량과에 나갈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5년 전 봉황대 건설에서 이미 확실했다고 봐야한다. 변벽이 봉황대를 세우는 시점에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내비쳤기 때문이다. 과거를 보는 것도 생원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은 시기가 봉황대가 완성되던 그의 나이 32세였다.

그렇다면 봉황대의 봉황은 어디에서 온 말인가? 물론 구산집에서 상인지의에서 봉황대의 이름을 취했다고 밝히고는 있다. 하지만 그의 유작 가부를 자세히 살핀다면 단순하게 상인지의(翔仞之義)로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변벽이 자신의 은거지에 봉황대를 세운 의미는 유일한 유작 가부에 봉황의 뜻을 찾는 것이 그의 뜻을 추량하는데 훨씬 가까이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신을 초나라 접여에 빗대어 표현한 것인데 이 대목에서 봉황대의 의미는 접여처럼 은둔하여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즉, 봉황대는 초광의 접여로 비유된 변벽이 덕을 감추고 살아가는 은둔의 장소였다. 하지만 접여로 비유된 의미에서는 여전히 현실 정치에 초탈하지는 않겠다는 역설적 공간이기도 했다. 초광인 접여도 비록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봉황에게 정치를 잘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민생이 도탄에 빠진다고 따끔한 충고를 하고 있는 점에서 변벽의 역설의 미학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 내용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변벽의 가부의 마지막 부분이다.

조정 관원으로 있을 때는 만나기 어려운 때를 축하하고, 그렇지 않은 즉 삼태기를 멘 초 나라 접여의 봉의 탄식을 본받을 것이다.<sup>12)</sup>(鵠立鵠班賀千載之一時不然則學楚狂於荷蕢歎鳳方之德襄也)

12) 초광(楚狂) 접여(接輿)가 공자의 문을 지나가며 부른 노래. “봉이여 봉이여, 어찌 이리 덕이 쇠하노.[鳳兮鳳兮 何韓之衰也]”

접여가 봉황을 부르며 공자의 덕이 쇠하여 간다고 애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봉황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고 있는 격이다. 즉, 봉황아! 너 덕을 잃으면 안 돼! 하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 변벽도 현실 정치에 끼어들 수 있는 입지도 없고 또, 도성의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변방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누구 못지않게 갈구하는 인물이 되겠노라.’ 하는 다짐을 초광 접여를 통해 드러냈다는 점이 상당히 파격적이라 하겠다.

변벽은 접여처럼 가풍으로 이어온 충과 효를 끝까지 간직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변벽은 성인에게도 접여의 말이 먹히듯 만인의 어른 임금에게도 자신의 말이 통할 수 있도록 인격과 학덕을 길러 닦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자신도 봉황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 변벽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김식이 백암에서 자결할 때 보여주는 그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면 변벽에게 있어 봉황대는 곧 은둔의 장소임과 동시에 애국심을 함양하는 장소로서의 공간이었던 셈이다. 한편 이러한 의미를 후손들이 살려내기 위해 영언재의 대문 현판에 봉황문이라 하여 걸어 놓았다. 그런데 대문의 현판을 봉황문이라 함은 앞에서 말한 봉황대 의미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변문의 의지로 볼 수 있겠다.



<영언재 앞 봉황문>

### 3. 양성재 의의

양성재는 영언재 내에 있다. 편액은 양성정사로 되어 있으며 제각을 지을 당시 변벽이 36세에 양성재를 구축한 뜻을 살려 오늘에 계승한 명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오늘의 밀양 변문들이 변벽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양성정사로 편액을 한 의도도 결국에 가서는 변벽이 기르려고 한 본성이 무엇인가를 추찰해 가는 과정과 상통하리라 여겨진다. 앞서 살핀 봉황대 의미도 가부가 풀어냈듯이 양성재도 봉황대의 의미가 갖는 넓은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본다. 그만큼 변벽이 남긴 가부는 그의 정신세계를 응축해서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것이다. 양성재를 세운 의미도 덕을 감추고 본성을 길러나가기 위해서였다.



<영언재 내 양성정사>

변벽은 양성재를 지으면서 위기지학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여기에서 강구해 나갔으리라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량의 서적이 필요했을 것이다. 구산집에서도 이를 잘 증명 해주듯 도서만가 즉 ‘시령에 책이 가득 차 있었던 곳’이 양성재였었다. 여기서 변벽은 외연에 흔들리지 않고 본성을 함양하고자 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독서를 통해 학문의 성과를 몸소 터득해 나갔다. 그의 나이 40세에 거창의 기묘 명현 형씨와 유씨가 양성재를 찾아오는데 여기에서 그는 내방자들에게 맹자의 호연지기를 깨닫게 되었다고 단언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변벽이 이처럼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학문을 통해 내면적 굳건함을 이루어 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변벽이 그의 서재 이름을 양성재라 명명한 의도는 성리학적

학문을 돈독히 해서 다른 이단에 치달지 않고 본성을 지켜서 결국에는 호연지기 단계로 자신의 본성을 길러 나가야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앞에서 언급한 봉황대의 은둔과 함께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이중의 모순을 봉황의 큰 뜻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4. 구산집 차례

구산집은 크게 서, 구산 선생 연보, 가부, 행장, 추존 문헌, 발문 등 여섯 장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초서로 쓰인 것이 서와 발문이다. 구산집서는 둘인데 이중 맨 처음에 나오는 작품은 구산 연보서(龜山年譜序)로 홍석주(洪奭周)가 썼다. 홍석주는 1774년에 태어나 1842년에 졸하였다. 홍석주는 『연천집』이란 문집을 남기는데 변벽의 구산연보서는 그의 문집에 누락되어 있다. 한편 두 번째 서는 한치응(韓致應)이 짓는데 실기서(實紀序)가 그것이다. 한치응도 홍석주와 동시대 사람으로 1760년에 태어나 1824년에 졸한다. 한치응도 『병산집』이란 문집을 남기는데 구산집에 나오는 실기서가 그의 문집에 실려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연보는 그의 후손들이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엮어놓은 것이지만 변벽이 직접 기술한 것은 아니다. 가부는 앞에서도 봉황대나 양성재의 의미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언급했지만 변벽의 사당 이름인 영언재도 이 가부에서 따다 지었다. 永以言律以聲<sup>13)</sup>이 이것인데 이 중 永자와 言자를 따서 오늘의 제각 이름이 된 것이다.

---

13) 길게 끌면서 말하고, 규율에서는 사성으로 하고.



<가부에서 가차한 영언재 편액>

다음으로 변벽의 행장을 모아 두었는데 이 글 또한 후손들이 쓰거나 혹은 문명 있는 학자에게 부탁해서 받아서 실어 놓은 작품들이다. 변벽의 연보를 보면 기세 후 2년 후인 경인년 즉 1530년 겨울에 묘갈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때 세운 묘갈은 현전하지 않은 듯하다. 또한 1530년에 세운 묘갈은 누구에게 글을 받았는지 글씨는 누가 썼는지 알 수도 없다. 다만 변벽의 오대손인 변유도가 찬한 가상이 현전하고 있으며 족보에서도 변벽의 행장을 찬한 일을 변유도의 업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변유도는 1627년에 태어나 1703년에 졸하였다. 구산문집에 남아있는 것으로 본다면 변벽의 행장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모계 문위 선생의 글이다. 문위는 1555년에 태어나 1632년에 졸하였다. 그 밖에 김시찬의 행장이 실려 있다. 김시찬은 1754년에 태어나 1831년에 졸하였다. 문집에는 『일일재집』이 있다.

그 밖에 변벽 행력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이나 추존문, 축문, 서원배향 상소문 등이 있다. 그 중 김식과 같은 현량과에 천거되었던 변벽이 이후 그의 고손자 김육과 함께 사당 배향 의론이 일어난다는 것을 역사의 법칙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역사의 아이러니로 보아야 하는지 현재로선 가늠할 길이 없다. 변벽은 지속적인 사림의 관심을 받으면서 고종 무진인 1868년 8월 16일에 와서야 통정대부 정삼품 사헌부 지평에 추증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이쯤 되면 그의 호인 구산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거북이기가 늦게나마 품은 뜻을 이루어 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으로 입지전적인 거북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발이 있는데 초서로 되어 있다. 발문은 유심춘이 썼으며 『강고선생문집』을 남겼는데 여기에 구산집 발문이 실려있다. 유심춘은 1762년에 태어나 1834년에 졸하였다. 한편 구산집은 1825년 을유년에 발간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며 현재는 일본 경도대학 하합문고에도 소장되어 있다.



### <구산집>

#### 5. 추존 과정

변벽이 1528년에 46세의 나이로 졸하였다. 구산집에는 그가 졸한지 2년 후 묘갈을 세웠다고 나와 있는데 이 묘갈이 변벽이 이후 영남 사림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최초의 증거물이었으리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열망과 압력이 없이 사후 2년 만에 포의의 묘갈을 그렇게 빠른 시기에 서도록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거창 지역에서 변벽은 사림의 상징적 인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고도 빠른 시기에 묘갈을 세울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변벽이 졸한 12월 23일의 연보를 보면  
遠近章甫莫不攬涕相弔曰哲人亡矣라 기록하고 있다. 이른 번역해 보면 “원근의 선비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 조문하면서 하는 말이 철인이 돌아가셨구나!”이다. 이 문구에 다소 과장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거창이라는 작은 지역사회로 축소 해석해 보더라도 변벽의 사회적 신망이 어떠한가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이라 하겠다.

임금의 경우 그의 사후 즉시 묘갈이 서기도 하는데 광해군의 경우가 이런 예에 속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고관대작을 지냈다 하더라도 바로 묘갈이 서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1554년에 동지사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대사헌이 된 뒤 한성부윤과 황해도관찰사를 지내다가 1566년에 졸한 정유도 1585년에 최초로 묘갈을 세웠다. 기묘사화에 조광조 김정과 더불어 기묘 명현으로 불렸던 김구의 경우도 1534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의 묘갈은 그로부터 한참 후인 1640년에 세워진다.

변벽은 비록 생원 시험에 합격은 했다고 하더라도 지방 처사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변벽의 묘갈이 이렇게 신속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그의 뜻을 추모하는 지방의 선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살아생전 그만큼 신망이 두터웠기에 후손의 열망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거창 지역의 선비들에 의해 이런 분들은 빨리 묘갈을 세워두어야 해 하는 압력들이 암암리에 비등했을 것으로 본다.

즉 지방 선비들의 끝없는 추모의 열망이 포의에 지나지 않았던 변벽의 묘갈을 아주 빠른 속도로 세워낸 것이다. 그렇다면 변벽의

묘갈이 이후 지방 사림의 상징적 인물로 지속적인 추존 열망이 되었다는 최초의 증거물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후 다시 세워진 묘갈만이 그의 묘소 입구에 그의 아들 변우함의 묘갈과 함께 나란히 서있다.



<변벽의 묘갈>

구산집으로 본다면 거창 사람들은 변벽을 그들의 정치적 학문적 구심점으로 삼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운동이 최초로 일어난 해는 1582년이였다. 그들은 변벽을 사당에 배향하고 그를 주벽으로 삼음으로써 지방 정치의 구심점을 형성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의 의론은 1706년에 양천서원을 건립하고 변벽을 이 사당에 배향함으로써 그들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입증하게 된다. 1749년에 다시 김위 등 영남 사림에서 변벽을 완계서원에 배향하기를 청하였다. 1776년에 양천서원을 병암으로 옮겨 세웠는데 이로서 변벽이 명실공히 거창사림의 존장이 되었다.

한편 변문에서도 홍석주 한치응 등 당시에 명망 있었던 문인으로부터 서문을 받고 유심춘으로 부터는 발문을 받아 1825년 을유년에 와서 구산집을 발간함으로써 변벽을 널리 선양하기 시작했다. 변문의 구산집 발간은 변벽은 살아생전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오로지 성리학에 몰두한 학자에게 사후 사헌부 지평이라는 벼슬을 안겨주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변벽의 사헌부 지평 추증은 변씨의 저력이 어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쾌거이자 후손으로서 그를 숭모하는 뜻을 남김없이 드러낸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6. 학문 지향 방향

변벽은 현량과에 천거되자 “저 번에 소과에 응시한 것은 어머니를 위해서였다. 지금은 어머니가 안 계시니 어찌 다시 벼슬문에 나가리오?”라고 하며 어머니를 핑계로 현량과에 응시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로 본다면 변벽이 생진과에 응시한 이유도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변벽은 효자였다고 보이며 이는 앞에서 변벽이 왜 기묘 명현이 되었는가에서도 밝혀낸 사실이기도 하다.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변벽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변벽이 세 살 때 그의 아버지 변신보가 졸하는데 어머니 동래 정씨는 핏덩어리 아들 변벽을 강보에 싸서 둘러업고 합천 야로 돈평을 떠나서 거창 가조를 지나 거창읍을 지나서 자신의 친정아버지가 살고 있는 거창 주상 도평리로 찾아들었다. 야로 돈평에서 주상 도평까지 온갖 고통을 견디며 백리 길을 걸어온 정씨 부인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 아들의 장래를 위한 고난 감내, 바로 그것이었다. 남편을 잃은 한 여인으로서 처절한 몸부림으로서의 이 강행군은 이후 변벽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마련해 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창 주상

도평을 생활 근거지로 삼아 이후 변벽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신진 학자로 성장하게 되었다. 변벽이 거창을 대표하는 학자로 성장하는데는 물론 높은 학덕과 사장을 지냈던 변중량 선생과 변계량의 후손으로서 당연한 결과로도 보이나 어머니 동래 정씨의 자상한 가정교육과 그의 외할아버지 훈육도 무시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어머니 정씨는 변벽의 장래 자녀 교육의 성취의 땅으로(將來教導成就之地) 자신의 친정을 택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씨 부인은 자신의 아버지 정사종에게 어느 정도 이상의 학문이 있다고 여겼다는 이야기이다. 정씨 부인의 친정 환가를 두고 맹모삼천지교라 말하는 것에서도 정사종이 변벽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변벽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핏덩어리 때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외할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났다. 외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어느 정도 대신해 줄 수는 있겠지만 옛 말 엄부자모라는 말을 통해 본다면 엄한 가친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변벽의 어린 시절은 상당히 불행했다고 여겨진다. 어머니도 변벽을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엄한 교육을 시켰을 것이다. 변벽이 생원시에 합격 할 때 어머니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엄하게 자식을 면려한다.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합격해라.” 매우 간명하지만 또 변벽의 폐부를 찌르는 정씨 부인의 지상 명령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변벽으로서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과거 공부를 준비해나가야만 했다.

변벽은 이러한 가정환경 속에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학문의 길을 간다. 하지만 아버지의 부재와 엄한 어머니의 가르침 속에 더구나 선천적으로 입지전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변벽으로서는 과거 합격을 위한 공부가 그리 달가울 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연보를 보면 여느 학생들처럼 10대에는 학문에 매진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씨 부인이 그의 나이 27세

때 그만 세상을 뜨고 만다. 더구나 어머니 정씨 부인마저 28세 때 돌아가시는 데 섬세한 감정을 지닌 변벽으로서는 심적으로 극심한 혼돈을 겪었을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것들이 결합되어서 변벽은 대과 응시를 단념하고 오로지 성리학에 탐심하기로 뜻을 세워 나갔다.

“저 번에 소과에 응시한 것은 어머니를 위해서였다. 지금은 어머니가 안 계시니 어찌 다시 벼슬문에 나가리오?”라고 하면서 현량과에 추천되자 변벽이 고사를 하는데 이때가 기묘년이였다. 기묘년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이니 변벽도 더 이상 어머니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과거 시험장에 나갈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앞에서 변벽이 출사를 단념하고 성리학 탐구에 평생을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굳힌 시기가 봉황대를 세우고 난 후라고 했다. 그런데 봉황대도 어머니가 세상을 뜬 이후에 세워진다.

변벽의 연보에 보면 처음 독서한 시기가 8세라고 했으며 이 때 본 책이 소학이라 되어있다. 이 소학이란 책이 무엇인가? 소학은 일상생활의 예의범절, 수양을 위한 격언, 충신·효자의 사적 등을 모아 놓은 책으로 보통 8세가 되면 입문하게 된다. 소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로는 권근, 김굉필, 이황 등이 있다.

김굉필(金宏弼)은 『소학』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여 모든 학문의 입문이며 기초인 동시에 인간교육의 절대적인 원리가 됨을 역설하였다. 그 자신도 일생 동안 『소학』을 손에서 놓지 않고 본인 스스로 소학동자라 자칭하기도 하였다. 김안국도 경상도 관찰사 재직시 소학을 한글로 번역할 정도로 소학 애찬론자로 잘 알려져 있다. 현량과를 설치해서 정치적 쇄신을 시도하려했던 조광조도 소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8세 때 읽었다는 이 소학을 단순히 당시 교육 과정의 하나로만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리라 본다. 즉 변벽은 결코 훈구 세력이 될 수 없으며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사림 학자와 뜻을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분적 유전자를 소학이라는 책이 드러내

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후 변벽은 형사보 유자방과 함께 사상적 뜻을 함께 하는데 이들도 혁신 정치를 바라는 세력이었다. 이는 현량과에 변벽이 추천되는 것을 보고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변벽은 정치적 색깔을 확실하게 하지는 않은 듯하다. 비록 자신이 혁신의 멤버이기는 하더라도 열성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 훈구 세력을 뒤엎고 16세기에 들어와서 정치적 힘을 잡는 집단을 서인이라 하는데 변벽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현실 정치에 뛰어들지도 않았으며 과거에 응시하지도 않았으니 그럴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다.

15세에 맹자와 논어를 공부했다고 나오며 20세에서는 학문에 상당한 진취를 이루어냈다. 그만큼 머리가 민첩하고 집중력이 뛰어난 듯하다. 22세에 정시 시험장에 가긴 하나 경박한 과거 풍조를 보고 즉시 단념하고 돌아온다. 정시 단념은 이후 그에게 과거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25세에 생원시에 합격하는데 이것도 어머니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해서 마지못해 응시했었다. 아무튼 생원시 합격은 이후 그가 봉황대를 짓고 양성재를 지어서 탐구하고자 했던 학문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어머니 정씨가 졸한 후에는 더욱더 출사의 의지가 꺾였을 것이다. 어머니의 삼년상을 마친 후 “이 때부터 세상의 출사를 사양하고 그윽한 곳에서 그 뜻을 기르고자 하였다.”에서 변벽은 죽을 때까지 조용히 학문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해나간다. 그의 나이 40세에는 공자가 말한 불혹을 맹자의 호연지기로 터득했다. 41세에는 그의 유일한 유작 가부를 지으면서 초나라 은둔자 접여의 풍모를 갖추었다. 42세에는 안빈낙도를 실천하면서도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은 안연의 풍모와 순임금의 효를 숭상하며 한 점 흐트러짐 없는 학문의 길을 걷기를 다짐했다.

## 7. 김식을 통해 본 사상 검토

김식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조선 후기 대동법 실시를 주창한 김육의 고조이다. 조광조·김안국·기준 등과 도학소장파를 이루어,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해 미신타파·향약실시·정국공신위훈 삭제 등의 개혁정치를 폈다.(두산백과사전) 김식은 기묘 명현의 한 사람으로 현실 정치에 적극 가담해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조광조 선생의 혁신세력 중심인물로 1519년에 증종반정 때 공신들 가운데 4분의 3에 해당되는 칠십 여명을 공신록에서 지우고 그들의 노예와 토지들을 빼앗아 왕도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으나 마침내 그들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그 이듬해 기묘사화를 불러일으킨다. 그 해 11월 기묘사화가 일어나 절도안치의 처벌이 내려졌으나 정광필 등의 비호로 선산에 유배되었다. 김식은 신사무옥으로 다시 사약이 내려진다는 말을 듣고 거창으로 피하였다.

김식이 신사무옥으로 인해 거창으로 숨어드는데 그가 최후를 마친 곳은 지금의 주상면 완대리 891-1 백암이다. 주상면사무소에서 1089번 도로를 타고 왼쪽으로 가다보면 완대리 삼거리가 나오는데 국도 37호선과 만나는 지점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왼쪽으로 1.5km 정도 가다보면 넘터 마을 표지석이 나오는데 여기가 완계 서원이 있었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일명 완계마을이다. 여기에서 마을길을 따라 40미터 정도 가면 오른쪽에 정자가 있고 그 근처에 기묘 명현 김식이 자살로 최후를 마쳤다는 백암이 있다. 아래 지도에서 까만 네모 부분에 백암이 있다.



<백암 위치>



<백암>

김식은 기묘사화가 일어나 선산에 유배되다가 사약을 내린다는 말을 듣고 거창으로 숨어들었다고 한다. 김식이 거창으로 피신하던 때는 1520년 5월 5일 단오였다고 한다. 이때 변벽의 봉황대를 김식이 찾아온다. 변벽의 구산집에도

1519년 겨울 남곤 심정 등이 북문을 열고 화망을 엮어 착한 선비들을 쳤다. 1520년 5월 5일 대사성 김식이 선산에서 선생에게로 와서 숨었다. 선생은 나막신을 신고 나아가 맞이하며 탄식하며 말하길 “의롭지 못하군요. 성덕을 지닌 임금님이 있는 이 때에 샅된 무리가 가득하여 현인이 숨어드는군요.”하고 새벽이 되자 눈물을 흘리며 봉황대 서쪽에서 이별하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다.

김식은 봉황대에서 변벽을 만난 후 지금의 주상면 완대리 891-1 백암으로 숨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김식이 숨어들던 당시 백암 뒤쪽으로 작은 굴이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김식은 몸을 은신하고 한 달여를 버티다가 사세가 부득함을 느끼고 1520년 6월 16일 자결하고 만다. 백암에다 자기의 슬픈 한을 묻고 죽어가면서 김식은 「군신천세의」라는 절세시를 남긴다.

날 저무니 하늘은 어둠을 머금고/	日暮千倉里
산속의 빈 절로 구름이 날아 든다/	山空寺入雲
군신의 의리는 천년을 가는데/	君臣千歲義
어디에 외로운 무덤을 둘꼬/	何處在孤墳

당시 분위기를 생각해 보았을 때 김식은 스스로 자기의 시신도 누가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이는 사람의 조종이었던 조광조도 마찬가지였다. 조광조는 기묘사화로 화순 능주에 유배 오는데, 유배 온 지 35일 만에 사약을 받고 38세의 나이로 불귀의 객이 되었다. 이 때 그 누구도 자기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 조광조의 시신조차 거두어 주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양팽손은 시신을 화순 도림에 은닉하여 보호하였다. 김식도 조광조와 같은 신세였으므로 자기의 신후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인연이 깊은 변벽을 찾아 봉황대로 온 것이다. 백암은 봉황대와 불과 6km 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이다. 김식은 자기 신변에 무슨 일이 있으면 즉각 변벽이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해서 일부러 봉황대와 가까운 곳에 숨어들었다. 실제로 변벽이 김식의 자결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현장으로 달려간 최초의 사람이었다. 이는 마치 조광조의 시신을 맨 처음 수습한 양팽손에 비견되는 의리를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16일 대사성이 고재의 백암 아래에서 자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선생은 즉각 현장으로 가서 곡을 하고 염까지 해 주었다. 또한

의대에서 초서를 발견하였고 또 백암면에서 절명사 2구를 발견하여 사라지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한 것을 두고 사람들이 모두 말하길 한 번 죽고 사는 데 있어서 사권의 의를 알 수 있다고 감탄했다.

백암에 쓴 절명시가 오늘에 전하게 된 까닭도 변벽과 연관된다. 소초는 대개 심정이 나라를 그리치고 난을 꾸민 일을 지적해서 말한 것이었는데, 김식이 품속에 품고 있었던 이 소초를 발견한 사람도 변벽이었다. 이러한 것이 까닭이 되어 1749년에 김위 등 영남 사림에서 김식과 변벽을 완계서원에 배향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변벽을 완계서원에 배향하자고 주장한 것도 결코 우연으로 볼 수는 없다.

지금의 백암이 있는 넘터 마을은 완계서원이 있었다고 해서 완계마을이라 부르기도 한다. 기묘 명현 김식을 완계서원에 배향했는데 이후 마을 이름이 완계가 된 것이다. 완계서원은 1664년에 창건되었으며, 1680년에 '완계'라고 사액되어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이런 완계서원에 김식과 여러 인연을 소중한 여긴 지방 사림들이 1749년에 변벽도 함께 배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배경에는 앞서 말한 절명시와 초소를 최초 발견하였으며 죽음을 무릅쓰고 기묘 명현에 대한 의를 지켰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자료들은 비록 변벽이 어머니 정씨가 졸한 후 벼슬에 뜻을 두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접여처럼 현실 정치에 무관심하지는 않았음을 방증하는 충분한 근거들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김식 자결 후 보여주었던 그의 행동을 통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학문에만 몰두한 고루한 학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김식이 봉황대를 찾아오자 못된 놈 때문에 착한 사람이 고통받는다하며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다. 여기서도 변벽이 은둔한 학자이지만 현실에 대해 끊임없이 변혁을 추구하려 했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변벽도 훈구 세력을 미워했다고 볼 수 있으며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지금으로 보면 진보적 성향의 사람이라 여겨진다.

## 8. 편액 고증

### 1) 정로당



한자: 靜老堂

한글: 정로당

뜻: 정암(靜庵) 조광조와 노천(老泉) 김식의 앞 자인 정과 노자를 따서 영언재의 방 이름을 지었다. 즉 기묘팔현을 대표하는 조광조와 김식의 사림 정신을 정통으로 이어받은 사람이 변벽이고 그가 사는 집이라는 의미이다.

### 2) 영언재

본문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한다.

### 3) 봉황문

본문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한다.

### 4)주련

#### ①圃翁淵源兩春正脈

포은 선생의 근원 춘당 춘정으로 정맥이  
(변유도의 가장에서 발취)

#### ②文毅道交義理昭著

김식과 도의로 교우로 의리가 밝게 드러났네

(김시찬 행장 참고)

③遁世高標承家篤孝

은둔하여 오히려 높이 드러나고 집안 이어 돈독하게 효도하고

(상향축문)

④靜老同歸名于己卯

조광조와 김식과 뜻을 함께하여 기묘 명현 되었구나

(상향축문)

⑤道學精深誠實純至

도학에 정통하여 정수함이 극에 이르렀어도

(김시찬 찬 신도비)

⑥素志丘園簞瓢眞樂

본디 뜻은 전원생활에 있어 단사표음 진락을 즐겼다네

(김시찬 찬 신도비)

## 결 론

변벽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명신 춘당 변중량의 5대손으로 태어났다. 가문의 위상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성리학에 잠심하여 힘써 공부하여 25세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이후 모친 정씨가 세상을 뜨자 벼슬에 뜻을 접고 봉황대와 양성재를 지어 독서에 힘써 거창 사림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1519년에는 현량과에 추천되자 생원시에 응시한 것도 모친의 유지를 받든 것인데 지금은

모친도 안 계신다고 하면서 은둔할 뜻을 굳게 하였다.

변벽은 조광조와 김식의 사림과 의리를 함께 했으며 특히 기묘사화로 거창에 숨어든 김식을 봉황대로 맞아들였다. 이후 김식이 백암에서 자결하자 현장으로 즉시 가서 곡을 한 다음 절명시와 초소를 세상에 알려지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조광조 사후에는 양팽손이 있어 절의를 지켰다면 김식의 사후에는 변벽의 의리가 있었다. 변벽과 김식이 처음 만난 봉황대를 찾아내서 이를 기념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아직까지 봉황대의 정확한 위치도 확인할 길이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변벽은 소학을 기본으로 하여 논어와 맹자에 정통한 학자였다. 그는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집안의 가풍을 이어 단정히 앉아 외물의 유혹을 끊고 내적으로는 존성(存省)의 공부를 돈독히 해나갔다. 이렇게 공부하여 큰 소득을 얻어 일세의 명류가 되었다. 선생의 성품은 엄결했으며 그릇은 컸고 학문은 달통했다. 그의 나이 41세에는 구산촌 북쪽에 둔세정을 짓고 후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변벽의 사상은 크게 충 효 의로 집약될 수 있는데 충은 나라의 기본 학문 방침인 성리학을 고수해 나가며 어떤 이단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의 일관된 삶에서 짐작할 수 있다. 효는 어머니의 뜻을 잘 따르는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다. 변벽을 이처럼 하늘이 보낸 효자였다. 의의 모습은 곤경에 처한 김식을 봉황대에서 맞이하는 장면에서부터 그가 자결한 후 절명시를 세상에 널리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변벽은 이처럼 충과 효와 의를 함께 갖추고 있는 세상에 보기 드문 인물이었다. 더구나 학문을 통한 인격 수양을 통해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인품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렇다보니 변벽의 인물됨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변벽의 사후 사림들의 지속적인 추존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사회에서는 은근한 사랑을 받아왔던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변벽의

이러한 덕성을 후세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리워했다고 볼 수 있다. 변벽의 효 정신과 의리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학문을 수양했던 덕성을 잘 계승한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훨씬 가치롭게 변해 나갈 것이라 본다.

변벽의 은둔 의지를 알 수 있는 문헌으로는 가부가 유일하다.  
그만큼 만년에 지은 가부는 변벽의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어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울러 오늘날  
변씨들이 영언재를 지어 변벽을 숭모하고 그들의 구심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영언이라는 말도 가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처럼 가부가 변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에  
마지막으로 원문과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종인들의 이해를  
조금이나마 돕고자 한다.

#### <참고 자료>

『구산집』, 1825년

『초계밀양변씨대동보』, 보전출판사, 1987.

『두산대백과사전』,

<http://hyeng19.blog.me/150104014398>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eochanggun&logNo=150170004690>

<후기>

최초 내가 변효경의 오대손 변국형의 후손인 디코 코리아 사장 변재영 현종으로부터 구산집을 받은 시점은 2013년 2월 13일이었다. 이후 바쁜 일로 인해 미루어 두었다. 미루어 둔 이유가 몇 가지 있긴 했다. 첫 째는 구산집 서와 발이 초서로 되어 판독하기가 여간 난해하다는 점이였다. 그 두 번째는 문집치고 양이 너무 빈약하다는 점이였다. 세 번째는 구산 할아버지의 위대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였다. 이런 이유로 그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있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거창 신씨의 신후경이란 인물을 알게 되었으며 영암으로 온 신후경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급기야는 신후경을 주된 화소로 삼아서 원고지 100매의 단편 소설을 쓰게 되었다. 그런데 변벽의 후손인 변청 할아버지 부인이 거창 신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차츰 변벽 할아버지에 대해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변벽의 이름과 구산의 호를 가져와서 신후경 (사실 신후경의 내용도 픽션의 요소가 많음)을 탐구해서 소설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 소설을 변희룡 교수님에게 보내주니 교수님은 소설 속에 나오는 변벽 할아버지가 실재로 구산 선생인 것으로 착각하여 강진에 변벽 할아버지 묘가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라고 메일을 보내 주었다. 나는 소설 속의 변벽은 거창 신씨의 신후경이고 신후경의 실제 묘소도 강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암에 있다고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었다. 교수님은 나의 말을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미있게 읽으셨다는 말에 조금 용기를 얻긴 했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구산이란 호가 나를 자꾸 따라다닌다는 것을 느꼈다. 마침 청곡 주은일 선생이 나에게 서예 한 점을 주었는데 내가 팽개쳐 놓은 구산집의 서문과 발문을 장식하고 있는 그 초서체였다. 교학상장이었는데 행서와 또 다른 맛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구산 선생 문집의 초서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청곡 선생마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니 불쾌해지기 시작했다.

옷통을 벗고 드디어 구산집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변벽 선생의 유일한 유작을 번역하고 영언재의 뜻을 알게 되었다. 이리하여 오늘의 이 글이 나오게 되었으며 이 인연으로 변벽 선생의 묘소까지 가게 되었다.

이 글이 나오기까지 세 명의 고마운 분이 있다. 구산집을 보내준 디코 사장님인 변국형의 후손 변재영 현종님 그리고 초서로 나에게 붓글씨를 써서 준 청곡 주은일 선생 그리고 소설을 읽어주고 영언재와 변벽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의 물꼬를 터주신 변희룡 교수님이다. 이 세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졸필을 마치고자 한다. 나의 둔한 자질로는 애초에 완성도 높은 글은 쓰기 어려우니 뛰어난 현인의 질정을 기다릴 뿐이다.

2013년 8월 24일에 우보 삼가 쓰다